인천주보

제2862호
2025년 1월 12일 | 주님 세례 축일

발행 천주교 인천교구 발행인 정신철 편집 천주교 인천교구 홍보실
주소 22573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 이메일 hongbo@caincheon.or.kr

우리 본당 가족사진 〈장기동 한국순교성인 성당〉, 1999년 설립

입당송 | 마태 3,16-17 참조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렸네.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분 위에 머무르시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제1독서 | 이사 42,1-4.6-7

화답송 | 시편 29(28),1ㄱ과 2.3ㄱㄷ과 4.3ㄴ과 9ㄷ-10(◎ 11ㄴ)

◎ **주님이 당신 백성에게 강복하여 평화를 주시리라.**

○ 하느님의 아들들아,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 주님께 드려라. 거룩한 차림으로 주님께 경배하여라. ◎

○ 주님의 소리 물 위에 머무네. 주님이 넓은 물 위에 계시네. 주님의 소리는 힘차고, 주님의 소리는 장엄도 하네. ◎

○ 영광의 하느님 천둥 치시네. 그분의 성전에서 모두 외치네. "영광이여!" 주님이 큰 물 위에 앉아 계시네. 주님이 영원한 임금으로 앉으셨네. ◎

제2독서 | 사도 10,34-38

복음 환호송 | 마르 9,7 참조

◎ **알렐루야.**

○ 하늘이 열리고 하느님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

복음 | 루카 3,15-16.21-22

영성체송 | 요한 1,32.34 참조

보라,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보았다. 그래서 이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이주의 **녹색순교** 친환경 운전-3급(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하지 않기

소리주보 QR

예전에는 미처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사람인지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성격이 조용했고, 자신감이 없는 모습으로 지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은 물론 대학 때도 이런 성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남 앞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는 항상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속상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이런 성격은 나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이런 나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대품피정 때, 조용한 성당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하다가 두 팔 벌려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습니다. 피난을 가다가 성전을 지키는 것이 본당 신부인 나의 소명임을 깨닫고 죽음을 각오하며 성전을 지키러 돌아갔습니다. 순간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견디기 힘든 생활 여건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포기해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나의 목숨과 부모님을 하느님께 맡긴 후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PRH(Personnalité et Relations Humaines.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본성을 회복하는 심리교육 프로그램. 프랑스 안드레아 호세 신부님 창시)를 접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총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내가 주님께 소중한 사람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제가 된 지 10여 년만의 일입니다. 그 이후에는 두렵거나 부끄러운 것이 없었고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제 생활이 참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기쁘고 자유로웠습니다. 기도하는 것도 의무감에서 벗어나 사랑의 기도와 살아 있는 기도를 모두 바치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담긴 사랑이 보이기 시작했고, 미사의 은총과 성체를 통해서 주시는 은총도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총의 체험은 주도권이 전적으로 주님께 있었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리된 것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셨던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딸, 내 마음에 드는 아들·딸이다.'라고 장엄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일깨우시려고 우리 내면을 흔들어 대십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내세울 것이 별로 없어도 그 자체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우리 가슴을 당신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면서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임을 알 때 예수님께서 어느새 우리 앞으로 다가오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느님을 만난 때를 떠올리며 힘을 얻곤 합니다. 하느님께서는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받는 아들딸임을 들려주시면서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과 고통도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이제 힘을 내서 다시 시작합시다. 언제나 든든한 후견자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느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딸임을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김태헌 요셉 신부
주안5동 주임

믿음의 촛불 밝히기 1_기초 편

미래사목연구소 편집부

지난주에는 ‘세 가지 보물’인 믿음·희망·사랑을 찾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삼색(三色) 촛불’을 하나씩 켜고 밝혀 볼까 합니다. 흔히 한 사람의 일생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세 가지 선택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고, 둘째는 직업을 선택하는 일이며, 셋째는 종교를 선택하는 일이지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종교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선택은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고 직업의 선택은 그의 활동 영역을 결정하지만, 종교의 선택은 그가 이고 사는 하늘을 결정 짓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놀라우리 만큼 강하고 묵직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어느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먹구름 하늘을 이고 살 것인지 태양이 빛나는 하늘을 이고 살 것인지, 우박이 떨어지는 하늘을 이고 살 것인지 무지개가 뜨는 하늘을 이고 살 것인지가 결정되는 중대한 일이니까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의 선택에 따른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를 믿을지는 확실하니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에게 숱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어느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아 두근두근 설렌다면, 그 말씀을 자신을 위한 ‘레마’(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 말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두 팔을 내밀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나를 불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대답해 주고, 네가 몰랐던 큰일과 숨겨진 일들을 너에게 알려 주겠다.” (예레 33,3)

하느님은 이처럼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 힘들 때 이 약속을 상기하면서 주님께로 가서 “저 좀 덜 힘들게 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루카 11,9-10)

이 약속 말씀은 우리가 하느님 앞에 무엇을 청할 때 괜히 주눅 들어서 청하지 말고, 당당하게 ‘채권자’처럼 청하라고 응원해 줍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주님! 약속대로 주세요!” 하고 애교 섞인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마음에 와닿아 가슴을 설레게 하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를 더 되새겨 봅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그는 시냇가에 심겨 제때에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되리라.” (시편 1,4)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붙들면 어떤 시련과 절망이 오더라도 힘이 납니다.

나에게 와닿는, 나를 무척이나 설레게 하는 성경 말씀을 갖고 계시는가요? 새로운 해, 내게 약속하시는 주님 말씀을 찾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틈날 때마다 꺼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주님 말씀과 늘 함께하는 삶 속에는 절망이 없으며, 언제고 다시 일어설 지혜와 용기와 힘이 항상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깔깔수녀님

회개(悔改), 너는 안 하니?

최종웅 다두 | 사우동 본당

우리 본당의 십자고상(十字苦像)은 예수님의 시선이 왼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십자고상에서 예수님은 머리를 오른쪽으로 떨구고 계시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골고타 언덕에서 돌아가실 때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죄수 중 한 명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다른 한 명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루카 23,42 참조)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루카 23,43)라고 응답하셨습니다. 이 회개한 죄수는 성 디스마스(성 라트로)로, 축일은 3월 25일입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신앙으로 비신자인 아내와 혼인성사를 받고 두 아들을 주님에게서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하느님께 맡겨져 복사 및 예비신학교를 거쳐 지금은 어엿한 사회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저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없이 신앙생활을 하며 성가정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성체조배를 하고, 갑곶 성지의 예수님 십자고상 발목을 잡고 기도해 보았지만, 그 허전함의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꾸르실료 교육 기간 동안 지도 신부님이 지시하신 묵상과 성체조배를 통해 우리 본당 십자고상을 바라보며 그 허전함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오른쪽만 바라보던 예수님께서 좌측에 있는 '나'를 보면서 들려주신 "너는 뭐 하니? 회개 안 하니?"라는 그 음성을 나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좌도(左盜)처럼 예수님께 꾸짖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중학교 시절, 수업료를 내지 못해 담임 선생님께 꾸지람을 듣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이번 주에 고추 팔면 다음 주에 주신다고 이야기했는데, 첫 수확물을 하느님께 바치기 위해 수업료보다 교무금을 먼저 내셨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성당과 하느님이 우선이었습니다. 이런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나도 신앙생활을 이어왔지만, 부모님을 흉내 낸 것에 불과하였으며 '나와 하느님' 간의 온전한 의탁과 간절함이 부족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나의 교만과 위선으로 상처받았을 주님과 이웃들을 생각하며 참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도 미사 시간에 십자고상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 자신이 행복한지, 슬퍼하는지, 기뻐하는지를 헤아려 보곤 합니다. 몇 년 전, 큰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진로를 변경한다고 했을 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무작정 성당에 가서 십자고상을 바라보며 한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회개하니 예수님께서는 '그는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니, 그가 하고자 하는 대로 하게 하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아들은 원하는 일을 하며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하느님께서 제게 주신 사명(使命)이 무엇인지 답을 얻고자 시간이 될 때마다 성체조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은 지식(知識)의 영(靈)과 호의(好意)라는 성령의 열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본받아서 이주민들을 돕고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고, 외국인 근로자 쉼터에서 봉사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환갑이 넘은 나이이지만 모 대학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과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고 성적표를 들고 주님께 자랑도 하며, 성령이 내 안에 임하여 나를 일으켜 세우심에 감사드렸습니다.

성체조배를 할 때, 저는 감실보다 십자고상을 바라봅니다. 십자고상의 예수님은 내 마음에 따라 여러 모습으로 변화됨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회개 안 하니?" 하고 물으시기 전에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회개하니,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참회하며, 인류를 위해 대속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느끼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아주 조금이라도 그러할 수 있도록 주님께 은총을 청합니다. 아멘.

2025년 희망의 순례자들 희년 개막 미사

교구 홍보기자 변훈 바오로, 교구 청소년사목국

지난 2024년 12월 29일(주일) 답동 주교좌 성당에서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와 교구 사제단의 집전으로 성년 개막 미사를 거행하였다. 십자가 예식에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25년 정기 희년 선포 칙서인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가 낭독되었다. 정신철 주교는 강론에서 "희년을 맞이하여 모든 교우가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희망의 순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일깨우며, 특히 가족 간 기도와 대화, 식사 등의 신앙 전수를 동반하는 '가정 복음화'가 그 시작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성체조배'를 생활화하여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희망을 느끼며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미사에는 교구민을 비롯하여 올해 7~8월부터 로마서 예정된 '희망의 순례자들'에 참여할 청년과 교리교사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희년 동안 영적 준비와 기도로서 전대사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엄숙히 청하였다.

평화의 날 교구 미사 및 신년교례회

교구 홍보실

2일(목) 답동 주교좌 성당에서 교구 사제단,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그리고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 정신철 요한 세례자 주교의 집전으로 세계 평화의 날 미사 및 신년교례회가 봉헌되었다. 강론에서 정신철 주교는 "을사년 새해에는 일치와 단결, 대화와 포용의 문화가 우리 사회 안에 쌓이기를 기도한다"고 새해인사를 전하였다. 또한 25년만에 찾아온 희년을 맞이하며 "사도 바오로가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로마 5,5)'라고 자신있게 외치고 명시한 그 말 자체가 희망을 향해가는 순례자들처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내게 해 준다"고 전하며 가정에서 사회, 국가적으로 희년을 신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지내기를 권고하였다. 이어진 신년교례회에서는 교구 여성연합회 임명장 수여,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위원 임명장 수여식과 함께 황규철 베드로 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회장의 새해 인사와, 참석한 유정복 바오로 인천시장의 새해 인사를 끝으로 미사를 마쳤다.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제1회 OBS 기후행동상 단체부문 수상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

지난 2024년 12월 18일(수)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사장 이용권 베드로 총대리 신부)은 OBS 본사에서 열린 '제1회 OBS 기후행동대상'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기후행동상을 수상하였다. OBS가 개최한 제1회 기후행동대상은 전 국민의 기후 행동과 기후 인식을 고취하자는 취지로 환경 보존을 위한 기후행동 공적을 가진 공로자들을 발굴하는 대회이다.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멸종위기종 서식지 보전 활동, 환경캠페인 체험 부스 운영을 비롯하여 가정밖청소년, 학교밖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반려해변 정화활동 프로그램 '제주맑음주의보' 등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와 기후 환경 보호를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기획하고 펼치고 있음을 성과로 인정받았다. 이날 시상식에 참여한 재단 사무총장 최인비 유스티노 신부는 OBS 기후행동대상 관계자에게 감사를 전하면서, "재단은 8년 동안 청소년들과 함께 바다 쓰레기를 줍는 해안정화활동을 지속해 왔고 천여 명의 청소년과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다"며, 이어 "이 상은 함께한 청소년들의 열정과 노력에 대한 인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환경을 생각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함께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하였다.

이 주에 기억해야 할 선종사제

MARAVAL Joseph(파리외방전교회) 1916.1.13 선종

교 구 청

경청 대화 모임
일시: 1/20(월) 19:00~21:00
장소: 노동자센터(경인로 671)
문의: 032-765-6970 정의평화위원회

553차 카나혼인강좌
일시: 3/9(주일) 13:30~18:30
장소: 보니파시오 대강당
문의: 032-762-8888 가정생명사목부

노인대학 성경교육
일시: 3/10~6/9 매주(월) 10:00~12:30
장소: 복자 이안나 홀
교육: 성바오로딸수녀원 / 비용: 소정액
문의: 032-761-0618

제주 4.3 평화기행
일시: 5/31~6/1 [1박 2일]
집결 및 해산: 제주공항
대상: 19~45세 신자
문의: 032-765-6970 정의평화위원회

교육 | 미사

마리아 학교 수강자 모집(3월 학기)
성모님에 관한 모든 것, 33일 봉헌
·대면반: 3/4~8/16 매주(화) 14:00~16:00
가톨릭회관 205호
·온라인 줌반: 3/6~8/16 매주(목) 20:00~22:00
접수: 010-2724-4819 서울마리아학교
(폰으로 신청)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교구 월례미사 및 쎌 회원 전체 피정
일시: 1/13(월) 9:30~15:00 파견 미사
장소: 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
준비물: 쎌기도 책, 미사도구, 필기도구, 개인컵
문의: 010-8702-5185

예수회센터 봄학기 비대면 강좌 [3월 개강]
·비대면 실시간 동영상(Zoom, 구글미트) 강좌
"영성과 철학상담-아픈 영혼을 '철학' 으로 치유하기"
일시: 매주(화) 19:00~21:00 [12주 과정]
·하늘씨앗 깨어나기(영성수련) [13주 과정]
일시: 화요반, 목요반, 금요반 19:30~22:00
(금요일반은 20~30대 청년 대상)
문의: 02-3276-7733
center.jesuits.kr

청주 초정성령회관 철야기도
일시: 매주(금) 21:00~(토) 3:00
강사: 전국 유명강사
셔틀버스: 19:00 출발 조치원역,
19:20 출발 청주 고속버스터미널
버스정류장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 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한라산 눈꽃산행 포함: 1/17~19, 23~25,
2/8~10, 14~16, 22~24
성지순례(추자도 포함): 3/1~4, 9~12
생태순례: 3/17~19, 22~24, 28~30
문의: 064-756-6009,
02-773-1463(제주자연피정)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25년 피정접수 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한라산 눈꽃산행: 2/7~9, 21~23, 25~27
일시: 3/1~3, 8~10, 13~16(추자도 포함),
3/18~20, 23~26(추),
3/29~31, 4/1~3, 5/4~6
문의: 064-796-4182,
02-773-1455(제주자연피정)

기도피정(전교가르멜 수녀회)
기도를 배우다
일시: 2/6(목) 10:00~16:00
장소: 계산동 전교가르멜 수녀원
(계양문화회관 옆)
비용: 5만원 (선착순 20명)
문의: 010-2037-9262

월요 낮 기도회(갈멜산 성령쇄신봉사회)
말씀 치유, 예언, 안수, 미사
일시: 12:30~17:00(16:00 파견 미사)
장소: 부천가톨릭교육관
지도: 오용호 세베리노 신부
문의: 010-8829-2038 회장 조홍조 사라

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가정치유를 위한 9일간 묵주기도 100단
일시: 1/13(월)~21(화) 12:00~17:00
(미사, 안수 16:00)
장소: 답동 주교좌 성당 내 문화관 3층 성령홀
문의: 032-761-6301

이승훈 베드로 성지 1월 후원회 미사
일시: 1/16(목) 15:00(14:20 묵주기도)
장소: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념관(무네미로 143)
문의: 032-765-6916

글라렛선교수도회 인천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1/13(월) 14:00
장소: 국제성모병원 장례예식부 B2
문의: 02-743-7026, 010-7764-6031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1/14(화) 14:30
장소: 부평2동 성당
문의: 032-529-9621

장애인연합회 월례미사
일시: 1/25(토) 11:00
장소: 사회사목센터
문의: 032-761-3992

제3기 교회문화유산 해설사 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인천교회사연구소, 천주교인천교구역사박물관, 인천가톨릭대학교 그리스도교미술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천주교인천교구 교회문화유산 해설사** 3기 양성과정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과정 수료 후 교구 공인 해설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교구 내 박물관, 순례지 등에서 해설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인천교회사연구소 천주교 인천교구 역사박물관 IOCA 그리스도교 미술연구소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일시: 1/23(목) 14:00
장소: 답동 주교좌 성당
문의: 02-3673-2525

모집 | 일반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드림로 472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백만원, 5백만원
문의: 032-765-7251
http://haneul.caincheon.or.kr

이승훈 베드로 성지 '기도의 벽', '추모의 벽' 신청
성지 성전에 지향자 성명 각인 1인당-1백만원
10년 동안 매달 1회 미사봉헌
문의: 032-765-6916 인천교구 성지위원회

갑곶성지 사무직원 모집
대상: 천주교에서 세례받은지 3년 이상 된 신자,
사무행정 가능하신 분
제출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접수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gabgot@caincheon.or.kr)
마감: 채용시까지
문의: 032-933-1525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직원 채용
분야: 후원관리 및 홍보 1명(계약직)
접수: 1/17(금)까지 이메일 접수
(caritas@cbck.or.kr)
홈페이지(www.caritas.or.kr) 참조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심리, 가족갈등 전화상담
일시: (월~금) 10:00~16:00
문의: 02-990-9366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수도회)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상담자 노경덕 신부

시각선교회 예비자 및 봉사자 모집
문의: 032-881-8281

성심(야간)중학교 40기 신입생 모집
중학과정 2년제, 나이제한 없음, 학비 교재 무료
수업: (월~금) 19:00~22:00
예비소집: 2/17(월)
장소: 부평4동 성당 교육관 지하
문의: 010-8398-9866

인천교리신학원 25년 신입생 모집
신자 재교육 및 교리교사 양성코스
인천교리신학원 홈페이지 참조
장소: 인천가톨릭대학교 송도캠퍼스 위치
입학상담: 032-830-7137(접수 중)

25년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접수: 1/17(금)까지 접수
·교리학과(주간, 주 5일), 종교학과(야간, 주 4일)
[2년 과정]: 선교사(교리교사) 자격증 수여
문의: 02-747-8501, ci.catholic.ac.kr

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신학과정
가톨릭 신학 전반 26과목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원서접수: 2/14(금)까지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예비자 통신교리(우편, 사이버, 신자재교육)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요금: 1만원
주소: 서울 중앙우체국 사서함 5234호
문의: 02-2274-1843, 4, www.cdcc.co.kr

바오로딸 성경학교 신입생 모집
과정: 입문, 중급, 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선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서: https://uus.pauline.or.kr
마감: 1/31
문의: 02-944-0819~23

9개월에 읽는 신약성경(Zoom)
일시: 3~11월(주일) 16:00~18:00 [12만원×3회]
지도: 작은형제회 김성태 신부
문의: 010-4598-6912

25년 사순·부활 전례음악 심포지엄
일정: 2/22(토) 최양업홀(중림동)
등록: 1/24(금)까지
대상: 전국 모든 가톨릭 성가대
접수방법: 홈페이지(www.casm.co.kr)
문의: 02-393-2213~5

순례 | 기타

성심 해외 성지순례
성모발현 성지순례: 베트남 라방, 짝께우 [5일]
일시: 3/31 출발(대한항공)
김현우 바오로 신부 동행
문의: 010-5909-5997

전국167, 제주 3박 4일, 베트남, 일본, 마카오 성지순례
매월 출발: 35만원, 120만원
과달루페 성모-멕시코, 페루 성지순례: 720만원
문의: 010-4239-1929

바오로 국내·외 성지순례
3/22~23 대구대교구 2차
2/24~3/6 이탈리아 [11일]
5/5~17 파티마, 루르드, 반뇌
문의: 010-9200-3532

가톨릭 해외 성지순례
25년 동반자 1백만원 할인 이벤트
3/17 이탈리아, 알프스, 프랑스 [11일]
3/17 유럽 4개국 성모 발현지 [12일]
4/22, 5/6, 13, 20 이탈리아 일주 [11일]
5/19 멕시코,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질 [13일]
문의: 010-5235-3533 가톨릭회관 619호

제주도 성지순례
가족,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팬션 예약가능
문의: 010-4566-6476 제주운전기사회

성소모임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모 성심을 통하여 천주성삼께
영광을 봉헌하고자 하는 수도 성소자 꿈나무
청소년, 청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010-5195-3217 성소부

신청안내

접수기간 2024/12/9~2025/1/19
구비서류 자기소개서(사진 부착 필), 지원동기서, 교적 사본 제출
·모든 서류 별도 양식 없음
신청방법 이메일(storiain@caincheon.or.kr) 또는 우편
(인천시 동구 박문로1 인천교구청 청소년센터 203호 인천교회사연구소)
수 강 료 30만원(원서접수, 선발심사 후 등록 확정 후 입금)

강의안내

일시 2025/3/7~5/23 19:00 매주(금) [총 13강]
장소 천주교인천교구역사박물관
대상 사제, 수도자, 평신도 20명 내외
문의 천주교인천교구역사박물관 032-765-6931
인천교회사연구소 032-765-7257,
010-8367-7257